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2화 룸비니 동산의 기적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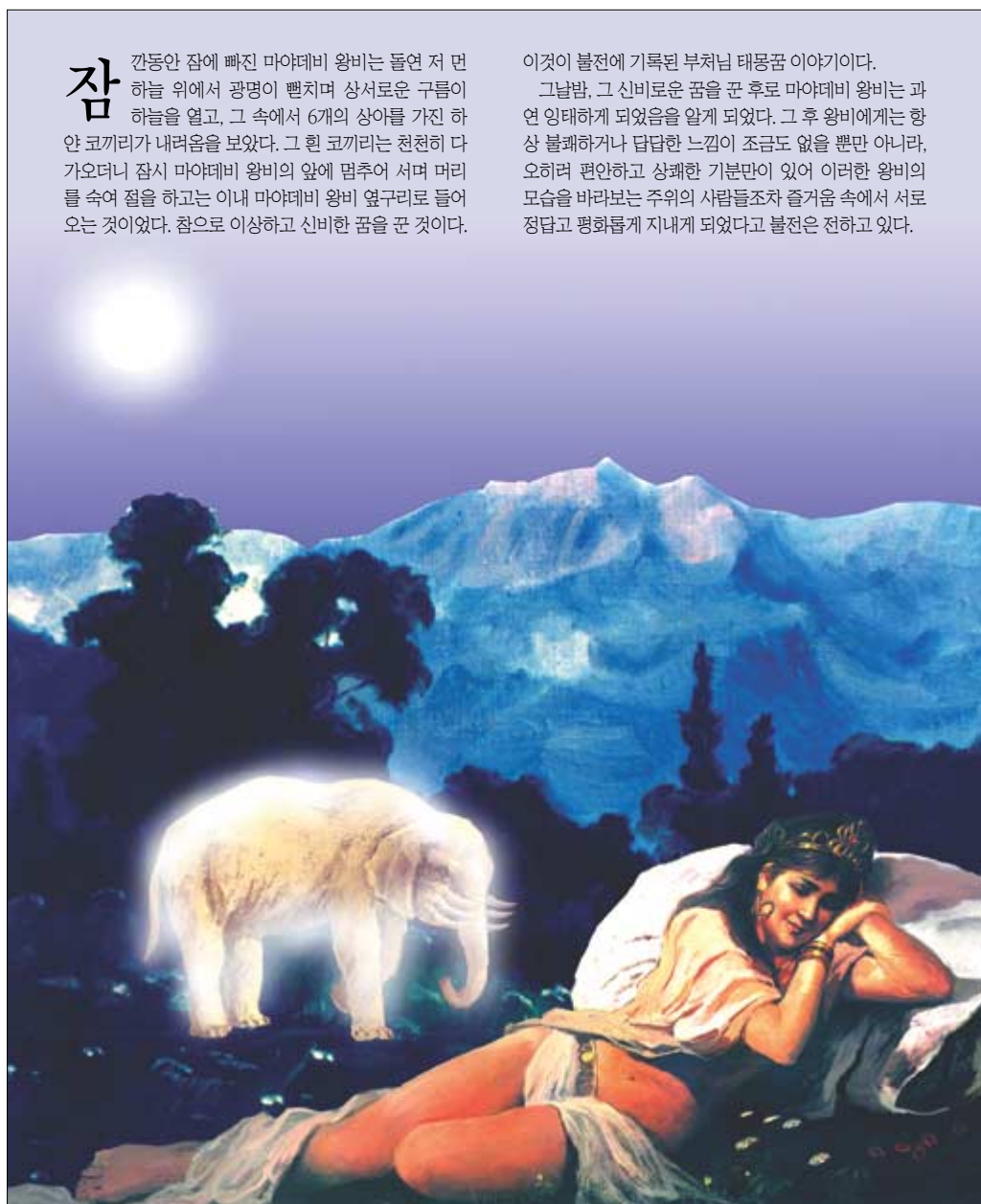


수 프라 붓다와 룸비니 왕비(王妃)사이에 두명의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으니, 그 첫째는 마야데비(Mayadevi)이고, 둘째는 마하파자파티(Mahapajapati)였다. 후일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마야데비는 마야부인(摩耶夫人)이라고 쓰이는데 Mayadevi의 devi는 현지 룸비니 말로 '여신(女神)'을 의미한다. 마야부인(摩耶夫人)의 또다른 표기는 마하마타(Mahamata)인데 이 경우엔 '위대한 어머니'라는

뜻이다. 주위 강국들의 위협으로부터 살아 남기 위해서는 사카족의 단결이 절실히 중요하여 카필라바스투와 코리아족의 왕실은 서로 혼사를 통하여 결속을 다짐하고 있었다. 그 결과 코리아 족의 두 공주는 모두 카필라바스투의 슈도다나 라자에게 시집을 가, 첫째 공주인 마야데비가 순서에 따라 제일 왕비로 정비(正妃)가 되었고 동생인 마하파자파티가 제 2왕비가 되었다.



이 제 나라의 질서가 잘 잡혀서 모든 것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카필라바스투의 슈도다나 라자는 두명의 아름다운 왕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때는 인도의 달력으로 바이사카 달의 보름날 밤, 슈도다나 라자는 정비(正妃)인 마야데비와 함께 달빛에 취하여 정원에 나와 즐기고 있었다. 한참 즐거움에 노닐던 왕비 마야데비는 풀연 연습해 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깐동안 잠에 빠져들었다.



잠 깡동안 잠에 빠진 마야데비 왕비는 돌연 저 먼 하늘 위에서 광명이 뻗지며 상서로운 구름이 하늘을 열고, 그 속에서 6개의 상아탑 가진 하얀 코끼리가 내려움을 보았다. 그 흰 코끼리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잠시 마야데비 왕비의 앞에 멈추어 서며 머리를 숙여 절을 하고는 이내 마야데비 왕비 옆구리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참으로 이상하고 신비한 꿈을 꾸는 것이다.

이것이 불전에 기록된 부처님 태몽꿈 이야기이다. 그날밤, 그 신비로운 꿈을 꾸 후로 마야데비 왕비는 과연 임태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왕비에게는 항상 불쾌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조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고 상쾌한 기분만이 있어 이러한 왕비의 모습을 바라보는 주위의 사람들조차 즐거움 속에서 서로 정답고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다고 불전은 전하고 있다.



그런 동안, 임태한지 10개월이 흘러 산달이 다가왔다. 첫 아기는 친정집에 가서 낳는 것이 당시 사카족의 풍습이었다. 마야데비 왕비도 관습에 따라 아기를 낳기 위하여 친정으로 향했다. 왕비의 친정은 이미 전술한 대로 코리아국의 데바다하(Devadaha)성이었다. 왕비 일행은 친정을 향하는 도중 룸비니 동산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은 왕비의 친정 어머니 이름을 따라 이름이 지어지고 만들어진 아름다운 곳이었다. 온갖 과일과 열매가 울창했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으며 맑게 흐르는 사냇물과 여러 곳에 연못들이 있는 훌륭한 동산이었다. 아름다운 룸비니 동산을 감상하던 마야데비 왕비는 돌연 생산의 진통이 있음을 깨달았다. 목적이진 데바다하성까지는 아직도 먼 길이었다. 왕비의 모습을 바라본 늙은 처녀들은 죽자 사람들을 시켜 장막을 치게 하고 아기를 받을 준비에 분주히 움직였다.